

<오후 4 시>

-잉고 바움가르텐의 사물 회화

서마립(예술비평가)

이렇게 묻는 게 맞다. 오후 4 시는 몇 시인가. 오후 4 시는 그저 오후 4 시에만 있는 건 아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묻는 게 맞다. 오후 4 시의 주소지는 어디인가. 전적으로 공간을 주제로 하고 있는 잉고 바움가르텐의 회화에서 이렇게 시간을 탐색하게 되는 데는 까닭이 있다.

잉고 바움가르텐이 형상화하고 있는 공간에는 사물만이 존재한다. 그 사물 대부분은 건축물이다. 기거나 걸거나 헤엄치거나 나는 생명체는 아예 없다. 풀과 나무마저 보이질 않는다. 그림을 그린 작가의 독일 성씨인 바움가르텐(독일어로 '나무-정원')과는 판판이다. 건물 전체가 나오는가 하면 건축 부분이 그림에 정교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렇다고 설계도 따위와는 전혀 무관하다. 이 그림들에서 명암이나 선묘는 철저히 전통 회화 기법인 듯 하지만 도리어 어찌면 거기서 멀어지고자 하는지도 모른다. 잉고 바움가르텐의 작품들은 익숙한 건축물들이 공연히 분리된 채 모종의 공간(도시)을 표류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문화주택에서 변천해온 새마을주택 단독주택 건축 시기의 집과 고층건물의 부분, 또는 아파트들이 무심히 고독하다.

작가가 내내 집요하게 천착하고 있는 것은 집의 사물성이다. 어디에도 삶이나 생활은 없다. 자연스러운 자연도 사실상 배격된다. 몇몇 구름 따위도 건축물에 부속되어 있을 따름이다. 집을 짓거나 하는 건축 과정 같은 건 어디 거처할 대목이 없다. 어떤 고발을 하고자 하는 의도 같은 것도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다. 작가는 사물로서 집 자체를 기록한다. 숯제 이것이 궁극적으로 그의 목적인 듯 보일 지경이다.

따라서 이 건축물들은 보금자리나 귀속처로서 집이기는 어렵다. 자본사회는 감정까지 상품화, 사물화해 왔다. 그 대응점에서 사라진 동독일을 포함한 사회주의 국가는 행정화로 치달아갔다고 압축할 수 있다. 행정화는 생활의 거의 모든 요소에 국가가 개입하는 걸 말한다. 현실 사회주의 체제의 진짜 붕괴 이유는 일상에서 찾는 게 더 맞을 게다. 20 세기 내내 두 체제에서 주체로서 사람과 삶이 소멸해갔다는 뜻이다. 예술은 거기에 맞서는 행위다.

산업사회 이후 인간 주거지의 사물성을 통찰하는 시각을 통해 작가는 자본사회에서 삶의 사물성을 그동안 치열하게 기록해 왔다. 작업해 온 분량만 해도 수 백 여 점에 이른다. 그의 작품들은 반듯하게 건조하고 정직하게 황량하다. 작가는 작품에서 좀처럼 감정을 노출하지 않는다. 풍요도 사치도 허영도 슬픔 같은 건 은닉되어 있거나 작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화폭 밖으로 쫓겨나고 있다고 보는 게 이상한 판단이 아닌 게다.

이렇듯 바움가르텐의 작업은 빈틈없는 사물 회화를 통해 사물로 대상화하고 전략하고 만 인간 주거지에 대한 강렬한 보고서다. 그림에 살아 있는 생명체의 등장이 불필요한 까닭이 이것이다. 그가

다루고 있는 건축물들은 한국이라는 공간에 있는 집들이다. 사물화된 공간에 사는 존재들은 그 사물성의 지배를 받아 함께 사물화한다.

어떤 공간도 시간의 영향 아래 있다. 사물화된 익숙하고도 낯선 건축물들은 오후 4 시에 머물러 있다. 오후 두 시는 졸린 시간이고, 세 시는 일하는 시간이고, 다섯 시는 퇴근을 환기하는 시간이다. 오후 4 시는 어떤 조짐이다. 무엇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무엇이 일어난 뒤도 아니다. 사물화된 건축물들은 오후 4 시에 서 있다. 단정히도 고독하게. 그건 결코 쓸쓸함이 아니다. 잉고 바움가르텐의 시각을 빌리자면 오늘 인간은 어디에 살고 있든 오후 4 시의 공간 속을 표류하고 있다.